

MY SURPRISE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GILLETTE: 나의 놀라움

프레임

나는 딸이 운동 재활을 받는 병원에 막 도착한 참이었다. 결코 누구에게도 말기지 않는 그런 순간 중 하나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문제 안에 있다는 뜻이지, 야구 경기의 관중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의자 하나뿐인 작은 탁자, 모두에게서 멀지만 그들의 시선에서는 멀지 않은 곳.

자리를 확보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가까운 탁자에서 낮잠과 담배를 즐기던 환자들이 함께 있어 달라며 나를 불렀고, 그들은 내가 와 주어 반갑다는 것을 주저 없이 분명히 드러냈다.

그들 중 한 사람만이 내가 글을 쓴다는 것을 알았고, 단둘이 있을 때면 그는 나를 Mr. Gillette라고 부르며 넓고 흡족한 미소를 아낌없이 지었다. 나는 그를 나무랐지만,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

우리는 칼라브리아라는 땅에 있었다. 내가 납치될 수도 있었던 곳, 60년대부터 90년대 사이 가장 크고 가장 수익성 높은 몸값 납치의 본고장, 여덟 자리 숫자의 금액. 여기에는 유괴가 없었다. 그런 것은 다른 지역, 다른 땅, 다른 문화의 몫이었다. 그곳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당화하는 데 쓰였고, 나중에는 용서받는데 쓰였다. 여기서는 아무도 먼저 합의하지 않고는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Cincinnati에 있지 않았다.

65세의 교수와 34세의 교사가 있었다. 둘 다 장애가 있었고, 둘 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으며, 평생 가르쳐 온 사람의 자신감으로 기하학과 고대 언어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있었다. 나는 듣는 사람으로 남았다, 돈을 내지 않는 관객으로.

그들은 이야기를 마치자 둘 다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들 같은 교수들이 공부하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들이 좋은 선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나는 걸어 나가며 말했다: 아, 하마터면 잇을 뻔했군요.

절대적으로 완벽한 기하학 도형은 당신들 둘이 몸을 낮춰 가며 주장한 정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입니다. 마치 두 개 이상의 삼각형의 합이 정사각형을 만든다는 뜻이 말이죠. 그리고 피타고라스라는 사람도 정리를 몇 개 세웠는데, 몇 개나 발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꽤 많이 만들었다는 것만은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류를 진화하게 한 언어의 토대는 당신들이 어리석게 주장한 것처럼 라틴어가 아닙니다. 그 가련한 바보들에게는 단어가 2,000개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이 와서 8,000개를 가져왔고, 철학을 낳았죠. 언젠가 우리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게 해 주는 바로 그 철학 말입니다.

그리고 알파벳의 “J”라는 글자가 이탈리아어가 아닌데도 그토록 많은 정체성에 언제나 근본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JAVE를 생각해 보고, 그다음 JESUS, 그다음 Gillette의 CEO Juliana, 그다음 P&G의 사장 Jejurikar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이름이 F로 시작하는 Frega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J는 나에게 너무 거추장스러웠을 테니까요. 결코 익숙해지지 못했을 놀라움이었겠죠.

Ferdinando